

근대기 한국과 일본 신종교의 생사관 비교연구*

- 증산교와 천리교를 중심으로 -

장재진**
sira113@naver.com

<目次>

- | | |
|-------------|---------------------|
| 1. 시작하는 말 | 4. 증산교와 천리교의 생사관 비교 |
| 2. 증산교의 생사관 | 5. 마치는 말 |
| 3. 천리교의 생사관 | |

主題語: 근대기(Modern age), 증산교(Jeongsangyo), 천리교(Tenrigyo), 생사관(A view on Life and Death), 신선(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후천(postnatal nature), 선경(a fairyland), 출직(Denaosi), 감로대(Kanrodai), 이상세계(the ideal world)

1. 시작하는 말

동아시아 사회가 격변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가 화석화의 현상을 벗어나서 개혁화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은 근대기라고 하는 시대의 상황과 함께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사회의 격변기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기성종교의 변화 역시 격동의 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신종교가 형성되는 과정은 기종종교의 화석화현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의 종교는 토속종교를 제외하고는 유교, 불교, 도교가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민간신앙이, 일본의 경우 神道가 함께 민중의 기층에서의 역할과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과 死에 대한 신종교의 관념은 전통을 대신해서 새로운 그 무엇으로 대체하려는 강렬한 시도가 진행된 근대라는 시기와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되고 전통적이며 기성적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기성의 것과 대척점에 놓였다고 보이는 것이 근대라는 시기의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2016F081)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상황이었다. 종교를 신앙하면서 내세의 구원을 믿는 경우와 사후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두 경우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생에는 항상 死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生死觀¹⁾의 종교적 인식도 이를 반영한다고 보인다.

종교에 있어서 생사관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은 삶의 행동윤리를 규정짓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종교의 탄생은 시대의 상황과 윤리적 척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규정짓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기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격변기에 발생한 신종교에 내재된 생사관은 개인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삶의 의의와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신종교는 에도(江戸)시대 말기인 19세기 초 이후 발전한 종교를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시대까지는 신종교 전체의 세력이 미미하다가 쇼와(昭和)시대, 즉 192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성립해서 1970년 무렵까지 성장하고 있는 종교를 신종교로 지칭한다.²⁾ 한국에서는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거쳐서 발생한 동학을 시작으로 전승되거나 변형 발전된 증산계, 일부계, 단군계 등을 비롯해서 원불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³⁾

한국의 증산교는 기성종교인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와의 습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형성된 생사관은 기성의 것을 답습하면서도 독창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 1)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 특히 공자의 영향으로 ‘死生觀’이나 ‘生死觀’에 대한 용어나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자학의 경우 제사와 함께 鬼神과 魂魄에 대한 심도 깊은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喪葬禮를 통한 규정에 관련된 문제의 범주인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와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사생관」이라는 단어는 에도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카토 테츠도(加藤 咄堂)가 『사생관(死生觀)』이라는 저서에서 사생관이란 단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加藤 咄堂(1904)『사생관(死生觀)』井瀨堂). 에도시대까지는 「생사관(生死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불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외 『신도의 사생관(神道の死生觀)』(아소야 마사히코[安蘇谷 正彦], 1989, 페리칸사), 「천리교 교조·나카야마 미키의 사생관(天理教教祖・中山みきの死生觀)」(신도학회, 1971) 등이 있다.(임순록(2008)「한·일 사생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日本近代學研究』한국일본근대학회, pp.193-203)
- 2) 구미에서는 19세기 이후에 발전한 종교를 가리키는 용법과 1960년대 이후에 발전한 종교를 가리키는 용법이 양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물몬교와 기독교과학 등 19세기에 기초가 확립된 종교를 신종교로 부르는 용법이 유력하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라즈니쉬나 사이언톨로지, 통일교 등 1960년대 이후에 발전한 종교를 신종교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유럽식의 신종교가 의미하는 바는 일본의 시신종교가 의미하는 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시마조노 스스무 지음, 이향란 옮김(2010)『포스트모던의 신종교』한국가족복지연구소, p.16)
- 3) 한국의 신종교는 1860년 崔濟愚에 의한 東學의 창도를 시작으로 본다. 韓國自生新宗教라고 불리는 계통으로는 檀君界, 水雲界, 一夫界, 甌山界, 奉南界 등이 있으며, 佛敎界 新宗教로는 法華界, 禪界, 淨土界, 彌勒界, 華嚴界, 密敎界 등이 있다. 기독교계로는 크게 기존 기독교계와 신생 기독교계로 나누어진다.(金洪喆 외(1997)『韓國新宗教實態調查報告書』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p.150-283 참고)

이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는 것으로 後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전제로 설명된다. 증산교의 교리에 의하면 후천이라고 하는 이상세계가 도래할 때 인간은 不老不死의 神仙이 된다고 믿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후천선경이라고 하며 이는 기존에 믿어지던 生과 死의 관념과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성 종교가 사후의 세계와 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생사관을 말했다면 증산교⁴⁾는 生과 死를 넘은 현실에서 진행되는 존재방식을 말한 것이다.

일본의 천리교는 기성종교인 유·불·도 삼교의 습합으로 보이는 증산교와는 달리 정토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 그리고 천리교의 독창적인 생사관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정토사상은 현실정토, 영장정토, 타방정토, 유심정토로 구분된다. 천리교는 이러한 정토사상을 고르게 습합하여 수용하지만 ‘出直’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의 양상을 통해 이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천리교의 생사관은 불교의 윤회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육도윤회와는 다르게 설명한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환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증산교의 생사관과 이상세계의 존재양상에 대해 모색하고, 不老不死를 지향하는 亡者의 존재방식의 특이한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생을 떠나서 타계로 향하는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다시 받아서 존재한다고 보는 천리교의 出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사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들 두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영혼의 존재양상, 그리고 제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조상에 대한 인식, 신과 사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연구가 지니는 의미가 보편성 찾기를 통한 역사인식과 다원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한 공생성의 확장에 있다면 본 연구는 이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2. 증산교의 생사관

증산교가 지향하는 생사관은 生과 死에 대한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生과 死가 없는 不老不死의 존재, 선풍도골인 神仙인 것이다. 쇠병사장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불로불사가 될 것이

4) 본고에서는 교조인 강증산의 사후 동화교나 대법사의 이름으로 설립된 초기 단체인 증산교를 중심으로 生死관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100여 년 동안 300여개의 다양한 종교단체로 설립된 다른 민족종교 계열의 종단에서 조금씩 다르게 전개된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조의 사후 가장 초기에 형성되었다고 간주되는 『대순전경』과 『천지개벽경』을 텍스트의 기본으로 보기 때문이다.

며 이러한 존재는 佛家の 佛·菩薩이나 道家의 神仙·眞人の 존재와 유사한 것이다. 당연히 죽음이 없으므로 生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것이다. 증산교의 생사관은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순전경』과 『천지개벽경』에 잘 나타나 있다. 『대순전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後天에는 天下가 한 집안이 되어 … 衰病死藏을 면하여 不老不死하며 … 과거, 현재, 미래 十方世界の 모든 일을 통달하며 … 淸和明麗한 樂園으로 화하리라.⁵⁾

換骨奪胎하여 仙風道骨로 바뀌게 된다.⁶⁾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 구성요소와 정신적 활동의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인간존재가 불가시적인 존재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생긴 관념⁷⁾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기성 종교적 관념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 혹은 두 세계의 지속적인 연속으로써 生과 死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와 달리 증산교는 衰病死葬이 없어진 不老不死의 세계구현을 예견한다. 衰病死葬이 없어진 不老不死는 生과 死가 반복되는 경계에 변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세의 통일성은 시간과 공간의 동질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不老不死나 長生不死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도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함이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논리보다 長生不死와 羽化登仙을 통한 현세에서의 영생이 도교의 이상적인 지향점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증산교의 사상은 삼교회통을 지향하면서도 도교의 현실주의를 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천지개벽경』에 나타난 제례와 장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기성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상이한 현상을 말하고 있다. “자손과 조상이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된다.”⁸⁾,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린 후 증산의 진영(眞影)을 올려놓는다.”⁹⁾, “백골을 땅에 묻지 않고 장사지낸다.”¹⁰⁾, “망자를 보낼 때 노래하면서 보낸다.”¹¹⁾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기성종교의 생사관과 상이함을 보인다.

5) 이상호(1929)『大巡典經』5章 16節, 仁同出版社

6) 이중성(1992)『天地開闢經』大道研修院 附設 龍鳳出版, 「戊申篇」12章

7)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민속원, p.24

8) 이중성(1992)『天地開闢經』大道研修院 附設 龍鳳出版, 「壬寅篇」7章

9) 앞의 책, 「丙午篇」1章

10) 앞의 책, 「癸卯篇」6章

11) 앞의 책, 「丙午篇」1章

자손이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조상의 영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무속의 전통에서는 영혼은 망자의 영혼인 死靈과 산 자의 靈인 生靈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사령과 생령의 교감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형태의 존재와 실재성을 뜻하는 것인지는 애매한 문제이다. 제사를 지낼 때 저승에 머무는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동양전통의 보편적인 종교의례의 인식과 달리 제사를 지내는 주체와 이를 맞이하는 대상이 동일한 時空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순전경』에서 언급된 생사관과 달리 『천지개벽경』의 내용은 생사관과 함께 존재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교에서는 인간이 得仙을 하게 되면 인간세계를 초월해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믿어지므로 굳이 인간세계와의 교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타계에 존재하는 조상의 영이 와서 함께 자손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시공의 변화나 존재의 실재성에 대한 다른 인식을 의미한다.

백골을 장사지낸다는가 망자를 보낼 때 노래를 한다는 것은 死가 있다는 의미이다. 『천지개벽경』의 내용은 衰病死葬이 없어진 不老不死의 세계가 지상에 도래하기 전에 生과 死의 이중적인 구조가 전개될 과도기적 세계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할 것임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선의 세계는 ‘亡者’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서 언급된 ‘亡者’와 ‘死’에 대한 개념이 時空과 존재성을 달리하는 실재인 것으로 규정되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백골을 땅에 묻지 않고 장사지낸다.’는 내용은 얼핏 보기에 불교의 火葬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와 샤머니즘의 습합으로 구성된 증산교의 경전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魂과 魄의 통합, 魂魄의 정화, 魂魄의 분리에 대한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와 샤머니즘의 문화를 종합해서 보면 ‘백골’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망자를 보낼 때 노래하면서 보낸다.’는 내용은 “영혼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혼은 살아 있는 사람과 똑 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티에서 망자가 다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잠시 환생하여 마치 살아 있을 때처럼 낫두리를 늘어놓는다”¹²⁾라는 조상곳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티와 달리 처음 망자를 보낼 때 슬픔과 울음이 함께하는 기존의 상례에 비견해 볼 때 상이한 양상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불교의 정토신앙에서 유관성을 찾을 수 있는데, 정토신앙의 경우 평소에

12)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민속원, p.85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것을 믿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인들은 망자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세계는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공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망자를 보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국인이 믿어온 신선의 특징을 보면 참된 신선을 眞仙이라고 해서 육체를 버리고 정신을 뽑아내어 모은 존재를 말한다. 그리고 神仙에 상·중·하의 등급이 있는데 “上土는 擧形昇虛함으로 天仙이라 하고, 中土는 遊於名山함으로 地仙이라 하고, 下土는 先死後脫함으로 屍解仙이라 한다. 上土는 天官, 中土는 곤륜산에 모여 살며, 下土는 세간에서 長生하는 것이다.”¹³⁾고 믿어진다. 이러한 신선들은 대부분 속세와는 절연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승되어 온 신선에 대한 존재는 세속과의 단절이다. 하지만 증산교에서 보이는 신선의 세계는 聖과 俗의 분리적인 이중구조가 아니라 聖俗이 일치된 이상세계의 존재관이라고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린 후 증산의 진영(眞影)을 올려놓는다.’는 구절을 통해서 증산교의 제사문화가 제사라고 하는 의례의 장소성과 眞影에 ‘중심’의 의미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조상의 靈이 제사를 받는 공간에 증산의 眞影이라는 성스러운 상징성을 연결함으로써 제사상이라는 ‘중심’의 장소적 특성을 실재하는 신화적 공간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증산교의 생사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후천 세상이 도래했을 때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완전한 이상세계가 도래하여 선천의 존재양상이 아니라 도교에서 말로만 전해져 오던 신선을 말함이다.

위의 경전에서 언급된 不老不死의 淸和明麗한 세상은 성스러운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는 차별화 된 두 세계의 존재성을 바탕으로 生과 死의 세계를 언급하던 기존의 종교관과 달리 새로운 세계의 공간과 존재의 동질적인 실재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상낙원’의 세계는 타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계가 우주라는 세계의 ‘중심’이 됨을 의미한다.

근대기에 형성된 증산교의 생사관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 인간의 세계와 신선의 세계, 속된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의 이중적인 구조로 형성되었다고 믿어진 “세계 내 존재의 두 방식,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취하는 두 실존적 상황”¹⁴⁾에 대한 탈 근대적이고 반봉건적인 증산의 사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기라는 동아시아의 역동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에서 국가 및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위기를 전 세계적인 실존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이은봉(2004)『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카톨릭출판사, p.136

14) 더글라스 알렌 지음, 유요한 옮김(2008)『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이학사, p.117

3. 천리교의 생사관

천리교의 생사관은 세계의 창조목적과 인간진화에 대한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천리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신의 몸(우주)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불변의 원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진화의 극치인 감로대세계가 되면 인간진화의 완성이 가까워 오고 수명은 길어지고 아픔이 없고 쇠함이 없으며 마음의 대립과 갈등이 소멸되어 평화로운 세계가 전개된다고 한다.¹⁵⁾ 이에 대해 천리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후로는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음에 따라 언제까지나 살리라. 또 앞으로 연수가 지나게 되면 늙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야.¹⁶⁾

진실한 마음에 따른 이 구제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이 구제 115세 정명으로 하고 싶은 한결같은 신의 마음.¹⁷⁾

천리교의 이상세계가 구현되면 衰病死葬이 없어지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115세의 정명을 규정한다. 죽음을 出直이라고 해서 주체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 윗(육체)만 바뀌 입는 것을 계속하는데 빌려 받아서(出生) 돌려드리는(出直)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사람의 주체(영혼)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한다.¹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해서 본 것은 중국을 비롯해서 이집트나 유럽에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관념이다.¹⁹⁾ 일본의 헤이안시대 초기의 설화집인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에 육체와 영혼의 蘇生譚이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육체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이 바뀌어서 다른 혼의 인격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혼과 육체의 분리가 곧 죽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설화에 담긴 이러한 내용이 魂의 幻生이나 還生,

15) 천리교편집부(1999)『아! 오야사마』도서출판 창조문화, p.70

16) 천리교교회본부(2008)『친필』연문인쇄출판사, p.88

17) 앞의 책, p.63

18) 천리교편집부(1999), 위의 책, pp.70-71

19) 靈肉의 분리에 대한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는 신체는 껍질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魂이라고 인식되었다. 죽음은 魂과 육체(껍질)의 분리이며 혼이 육신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인간은 카아(カア)와 바아(バア)라고 하는 두 종류의 영혼과 세트(セト)라고 불리는 육체로부터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가아는 사후에도 미라로 된 遺體나 묘의 상부구조로서 彫像에 머물러 신불에게 바치는 공양인 供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존재였다. 유럽에서도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이래의 전통으로 되어 있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도 또한 같은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사토 히로오 저, 성해준 역주(2011)『일본열도의 사생관』도서출판 문, pp.57-59)

또는 再生의 의미로 전승되어 확대 재생산 된 것으로 보인다.

천리교에서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出直을 정의한다. 여기서 出直은 당연히 몸을 바꾸어 태어남을 의미한다. 천리교의 生과 死, 그리고 出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魂의 인연에 따라 신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접지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면, 누구나 건강하고 즐겁고 명량하게 살 수가 있으며 또 신이 정한 115세 정명을 누리게 된다.(生)²⁰⁾

사람은 마음에 티끌을 쌓으면 제멋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이 바라는 즐거운 삶도 살지 못하고 고생스럽게 살며 또 주어진 정명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일찍 사망하게 마련이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잘못으로 도중에 사망하는 것이다.(死)²¹⁾

아버이 신은 어디까지나 귀여운 자녀인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비록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정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해도 내생에 다시 새 육신을 빌려 태어나도록 수호해 주신다.(出直)²²⁾

魂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를 가사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蘇生에 관한 설화들을 보면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육체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 일본열도에서 널리 행해진 殯도 그 한 단면의 의미는 혼을 불러들여 죽은 자를 재생시키려 한 의례였던 것으로 추측한다.²³⁾

여기서 蘇生의 결과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몸으로 魂이 환생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천리교의 出直은 완전히 현생의 몸을 떠나서 다른 몸으로 出生하는 것이다. 불교의 생사관인 六道輪廻를 통해서 다른 몸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천리교의 出直에 대한 관념은 교조인 나카야마 미키와 생애를 마친 그의 아들 슈지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엾게도 다시 어서 돌아오너라.²⁴⁾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낮은 아버지 신님 품에 안겨 있어. 흰 옷을 벗어버렸을 뿐이야.²⁵⁾

20) 고다끼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246

21) 앞의 책, p.246

22) 앞의 책, p.246

23) 사토히로오 저, 성해준 역주(2011)『일본열도의 사생관』도서출판 문, p.61

24) 고다끼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250

25) 앞의 책, pp.250-251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이전의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헌 옷을 버렸다는 말은 이전의 육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유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공간으로서의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삶과 죽음이 유기성을 지닌다는 우주로의 환원적 사고”²⁶⁾인 중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전승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죽음을 슬픈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하는 전통은 정토종의 신앙에 담긴 죽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카야마 미키의 초기 신앙이 일본의 정토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을 더 나은 환경에서의 재생을 통한 실재성의 확보에 두고자 한 것일지도 모른다.

천리교에서는 신(元の神)의 몸(우주)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불변의 원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生과 死의 이중적 구조는 결국 천리교의 神 안에서 존재하는 통일적 실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체적 존재로서의 生과 死의 의미를 보면 生老病死나 衰病死葬을 겪으면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로대세계가 완성되었을 때가 인간진화의 극치가 되고 이 시점이 되면 衰病死葬이 없어지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감로대가 창조와 환생·진화·성인을 주재하고 태초의 비밀을 담은 세계 제일의 보배이며 으뜸의 신(元の神)이 창조지점을 밝힌 곳이라고 한 것”²⁷⁾을 보면 세계 중심의 상징을 ‘감로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의 종교적 세계에서 모든 소우주, 모든 거주 지역은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²⁸⁾

천리교의 생사관은 예부터 일본인들에게서 전승되어 온 再生觀에 도교적 환생관 그리고 불교적 윤회관이 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리교의 생사관 속에 명량하고 즐거운 삶을 지향하는 긍정적 현실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거주하는 공간이나 장소이다. 出直관념을 중심으로 사후 세계의 존재성을 보면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보다도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천리교가 주장하는 세계는 神人和樂의 세계이다. 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계속해서 出生과 出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出直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천리교의 윤회관이 현세 일원론적이고 현세 구원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6)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민속원, p.75

27) 천리교편집부(1999)『아 오야사마』창조문화, p.35

28) 더글라스 알렌 지음, 유요한 옮김(2008)『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이학사, p.251

4. 증산교와 천리교의 생사관 비교

증산교와 천리교의 생사관을 비교하기에 앞서 각각 생사관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증산교의 경우 ‘衰病死葬이 없어진 不老不死’, ‘換骨奪胎하여 仙風道骨’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淸和明麗한 樂園’이라는 時空間이 이에 해당한다. 천리교의 경우는 ‘衰病死葬이 없어지고 영원히 사는 세계’, ‘出直’을 통한 나선형식 발전관을 통한 명량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다.

두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은 生과 死의 고뇌를 벗어난 이상세계의 구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엘리아데가 말한 聖과 俗의 이중적인 구조에서의 존재성이 아니라, 이 세계 내에서의 단일한 ‘중심’을 통해서 두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성스러움의 현현인 동질적 장소로의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증산교와 천리교에서 말하는 생사관에 대한 유사성을 보면 이상세계가 구현될 때 衰病死葬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老衰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어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인류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현실에서 육신으로서의 존재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동안 인류는 他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喪葬에 관한 禮法을 만들어 왔다. 망자의 평안을 기원하는 다양한 풍습이 여러 종류의 喪葬禮를 통해서 진행되기도 했다.

다수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보다도 한편으로 他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의 망자의 존재에 대해 비중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증산교와 천리교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그 중심이 이 세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제시했다. 또한 영원히 사는 세상과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실현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는 점이 두 종교의 유사성이 해당한다. 이는 “피안의 세계나 미래의 유토피아에 부여되었던 神性을, 생성하는 이 세계에 다시 부여하려는 시도”²⁹⁾가 함의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근대기에 이르면 이승과 저승을 구별하여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안을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중세적인 세계관이 전환기를 맞이하여 현세중심의 인식이 확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실제로는 체험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피안세계를 추상적인 思辨만에 의해 재구성하려고 한 중세신학이 자연계에 대한 사람들의 智見이 넓어져 그 조직을 실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정신의 發興에 의해서 존재하는 발판을 좁혀갔다.”³⁰⁾는 점을

29) 박찬국(2011)『현대 서양철학의 생사관, 극한의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운주사, p.249

30) 사토히로오 저, 성해준 역주(2011)『일본열도의 사생관』도서출판 문, p.313

고려해서 본다면 근대기에 발생한 두 신종교의 전개도 이러한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의 상황을 슬픈 일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사회의 세속화와 神佛의 지위 저하가 이 세상의 확대와 저 세상의 축소로서의 現出³¹⁾과 상관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일본에서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의 세계관에 此岸으로부터 彼岸의 분리와 그 肥大化가 진행된 반면, 14세기 후반부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현상이 널리 보이게 되었다는 점³²⁾은 근대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천리교의 전개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기에 발생한 사회적인 상황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신종교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진행된 생사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사회적인 풍습에서 신이나 죽은 자가 사는 세계가 더욱 축소되고 한정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생사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³³⁾

두 종교의 상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혼의 존재양상에 관한 것이다. 증산교는 궁극적으로 衰病死葬이 없는 不老不死의 神仙세계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지만 그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生과 死의 왕래가 있음을 말한다. 이와 달리 천리교는 주체인 영혼이 출직과 출생을 반복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궁극으로는 원래 신의 뜻대로 神人和樂한 세상에 사는 것이다. 증산교가 인간존재 자체가 神仙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믿는 것과 달리, 천리교는 神의 자녀로서 和樂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증산교의 神仙은 水雲 최재우가 말한 內有神靈하고 外有氣化하는 중심적인 존재로서 성과 속의 이중적인 구조를 넘어선 통일적 존재이다. 이와 달리 천리교에서 말하는 인간진화의 극치를 이룬 감로대의 세계는 중심과 주변의 역할이 구분되는 성과 속의 이원적 일원의 세계인 것이다.

둘째, 제례와 장례에 관한 문화이다. 증산교에서 말하는 ‘백골을 묻지 않고 장례 지낸다.’는 것과 ‘망자를 보낼 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백골을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해서 태우든지

31) 앞의 책, p.313

32) 앞의 책, p.313

33) 14세기 후반부터 일본 열도에서는 피안의 세계를 축소하여 먼 정토에 대하여 안고 있었던 리얼리티를 잊고 후생에 먼 타계에 왕생한다는 믿음이 적어졌다. 우선 우키요(浮世)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사후도 이 세상의 일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자손과 친하게 교섭을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세계의 지각변동은 이에(イエ)의 광범위한 성립과 단나데라(檀那寺)의 보급으로 에도시대에 정착되었다. 근대 이후는 신이나 죽은 자가 사는 세계는 더욱 축소되고 한정되었다.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초월자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없다. 무신론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되어, 타계는 墓場이나 怪異스포츠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극히 한정된 장소나 어둠의 한편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다.(사토히로오 저, 성해준 역주(2011)『일본열도의 사생관』도서출판 문, pp.313-314)

하던 유교적 전통의 방식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리고 울면서 망자를 보내는 기존의 풍습과 달리 노래를 부르면서 보낸다는 것도 새로운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증산교의 제례와 상례의 문화가 기존의 풍습과 다른 경우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천리교의 경우 독특한 장례문화가 형성된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불교처럼 화장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의 문화와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증산교는 기성종교인 유·불·도 삼교의 혼재된 사후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의 이상세계의 존재는 완성되어 신격을 갖춘 존재 혹은 神과 유사한 존재이므로 生과 死의 초월성을 지닌다. 이와 달리 천리교는 사후의 구원을 위해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이 성장해서 成人³⁴⁾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陽氣生活이라고 하는 밝고 쾌활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神과 사람과의 관계성이다. 증산교에서는 사람의 격이 神의 격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이므로 이 세계에서나 타계에서 神의 사람보다 우위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어진다. 이와 달리 천리교에서는 근행과 수훈을 통해서 아버지 신인 으뜸의 신과 함께 하지만 神의 존재성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실재한다.

탈 신비주의나 탈 종교주의를 지향하던 근대기라고 하는 시기에 두 종교는 생사관에 있어서 幻想의 전통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 幻想性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두 종교의 생사관은 기존의 종교전통이 聖과 俗의 이중적인 구조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聖과 俗의 일원적 실존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幻想은 늘 타자였으며 환상성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왔다. 탈신비화나 탈종교화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또한 환상을 내세우기에는 매우 불리한 토양을 지녔다. 유교적 지배 이념에 안티테제로 작용한 불교나 도교에서 고정된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존재의 면모를 재 고찰 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³⁵⁾ 三敎의 전통성을 전승하는 가운데 증산교는 도교적 전통을 천리교는 불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삼고 환상적 모티프를 신종교의 이상세계 구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산교와 천리교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영혼의 존재양상, 그리고 제례와 장례에 관한 의례,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증산교와 천리교의 생사관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34) 천리교에서 인간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신의 의도에 맞게 마음을 키워서 완성된 존재를 말한다.

35) 강민경(2007)『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주), pp.184-185

<중산교와 천리교의 생사관에 대한 유사성과 상이성>

		중산교	천리교
유사성		완성된 이상세계가 구현되면 쇄빙사장이 없어지게 됨. 이상세계가 타계가 아닌 현실에서 구현됨. 영원히 사는 세상과 장수하며 사는 세상에 대한 구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음. 죽음을 슬픈 일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상이성	영혼의 존재양상	과도기의 존재양상과 완성기의 존재양상에 대한 구분이 있음. 완성기의 존재양상은 신선과 같음.	인연 따라 진급과 강등을 반복하며 진화하는 가운데 환생하고 있지만 주체인 영혼은 출직과 출생을 반복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임.
	제례와 장례에 관한 문화	백골을 묻지 않고 장례함(완). 망자를 보낼 때 노래를 부름(완).	천리교만의 독특한 장례문화가 형성된 것은 아님.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불교처럼 화장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음.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유·불·도 삼교의 혼재된 사후세계관. 완성되어 신격을 갖춘 존재이므로 生과 死를 초월함.	사후 구원을 위해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봄. 신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이 자라 주기를 바란다는 것.
	신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격이 신의 격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임(완).	근행과 수훈을 통해서 아버이 신님과 함께 화락함(완).

5. 마치는 말

중산교와 천리교의 두 종교는 이들이 지향하는 이상세계의 구현 이후 지상에 도래하리라고 믿어지는 세상에 대한 묘사에 생사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근대기라는 격동의 시기에 기성종교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신종교는 기성종교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기성종교의 그것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면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성종교와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시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이다.

두 종교에서 보이는 생사관을 통해 쇄병사장의 소멸, 현실에서의 영원한 삶, 죽음을 슬픈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다른 인식의 차원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거대한 차원에 있어서 존재양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차원의 큰 변화를 겪고 난 후에 전개될 일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두 종교의 경전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선천개벽 이후로 수한도병(水旱刀兵)의 겁재(劫災)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탕하였으나 아직 병겁(病劫)은 크게 없었나니 이 뒤에는 병겁이 온 세상을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하리니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의통(醫統)을 알아두라.

(『大巡典經』pp.5-33)

이곳에서 구제 한줄기를 저지당해 어떻든 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 이 갚음 큰 신사 높은 산 무너뜨릴 테니 모든 사람은 명심해 두라.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가 하늘에는 불비 바다는 해일이야.

(『親筆』6:114-116)

두 종교 모두 이상세계가 실현되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지나간 후에 쇄병사장이 없는 조화로운 세상의 구현을 예견하고 있다. 두 종교에서 말하는 生死관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 완성된 존재에게 부여된 초월성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성종교에서 이해되어 온 생사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말해진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의 생사관은 기존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설명된다. 두 종교가 제시하고 구현되리라 믿고 있는 인간의 존재성은 무한과 영원을 향한 대망(待望)과 갈망(渴望)의 현존(Sein)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강민경(2007)『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주), pp.184-185
 고다끼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p.246-251
 金洪喆 외(1997)『韓國新宗教實態調査報告書』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p.150-283
 더글라스 알렌 지음, 유요한 옮김(2008)『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이학사, pp.117-251
 박찬국(2011)「현대 서양철학의 생사관, 극한의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p.249

사토 히로오 저, 성해준 역주(2011)『일본열도의 사생관』도서출판 문, pp.61-314

시마조노 스스무 지음, 이향란 옮김(2010)『포스트모던의 신종교』한국가톨릭지연구소, p.16

이상호(1929)『大巡典經』仁同出版社, pp.1-420

이은봉(2004)『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카톨릭출판사, p.136

이중성(1992)『天地開闢經』大道研修院 附設 龍鳳出版, pp.1-641

임순록(2008)「한·일 사생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日本近代學研究』한국일본근대학회, pp.193-203

천리교편집부(1999)『아! 오야사마』도서출판 창조문화, pp.35-71

천리교교회본부(2008)『친필』연문인쇄출판사, pp.63-88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2001)『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민속원, pp.24-85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9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要旨>

근대기 한국과 일본 신종교의 생사관 비교 연구

- 증산교와 천리교를 중심으로 -

장재진

근대기 한국의 증산교에서 보이는 生死觀은 기성종교인 儒敎와 佛敎, 그리고 道敎와의 습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도 後天이라고 하는 이상세계 도래의 존재성은 인간이 不老不死의 神仙이 되는 것으로 도교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천리교는 정토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과 함께 독창적인 생사관을 보인다. 천리교는 ‘出直’이라고 하는 환원적인 존재의 양상을 이상세계의 실재성으로 규정한다. 두 종교의 유사상은 神仙과 대등한 존재의 세계 혹은 神人和樂의 세계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종교의 상이성은 이상세계라는 새로운 사공간에서의 존재의 실재성에 관한 것으로, 독립적이고 자립적 실재성을 말하는 증산교와 의존적이면서 진화된 존재성에 대한 천리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 Comparative Study of a view on Life and Death of new religion of Korea and Japan in Modern age

- With focus on Jeungsangyo and Tenrikyo -

Jang, Jae-Jin

Jeungsangyo's viewpoints of life and death(生死觀) in early korean modern times is considered to have been formed from a combination of three established religions: Buddhism(佛敎), Confucianism(儒敎), Taoism(道敎).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an ideal world-to-come called the heaven-after(後天) implies that human being's quests for immortality(不老不死) can be achieved after becoming hermit(神仙), which is close to the idea of Taism. Japanese Tenrikyo holds creative viewpoints of life and death, merging the ideas of pure land buddhism and folk beliefs. Tenrikyo defines the aspects of reductive existence who pass away for rebirth(出直) as the realities of ideal. The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religions is that both religions aim at realization of the world of the existence equal to hermit神仙 or the world of harmonic life of god and human being(神人和樂).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ligions is about different viewpoints about the reality of existence in new time-space. To be specific, Jeungsangyo assumes independent and self-reliant reality while Tenrikyo supposes dependent and evolved existence.